'손영수 상'을 제안합니다

DOI: 10.3938/PhiT.25.030

장 인 용

이 글을 저에게 쓰라고 한 이유는 과학책을 얼마간 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니, 과학책을 읽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나 봅니다. 제가 과학책을 읽지 않았다면 과학책을 낼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60년대 초의 어린 시절은 책이 그다지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왕성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책들은 몇 권 없었고, 전집의 전성시대인지라 전집에는 동화와 위인전들만 있었을 뿐이고, 그 위인전에 맛보기로 끼어들어간 쿼리 부부 같은 과학자 전기가 과학 냄새가 조금 풍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집들도 선뜻 사줄 만큼 여유 있는 부모들도 그리 많지 않았고, 이들을 빌려 볼 도서관들도 마땅치 않을 때 책이 보고 싶으면 자신의 책들과 바꿔볼 수 있는 동무들을 찾거나, 또는 잘 사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 그들 책장에 꽂혀만 있던 책들을 잠시 빌려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갖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얻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아이들은 만화만 좋아하고 동화책이나 위인전만 즐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과학과 미래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환상을 품게 하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하늘의 흰 구름은 왜 거기에 있으며, 하늘과 바닷물은 왜 파란색을 띠고 있는지, 기묘한 동식물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늘 궁금해 합니다. 또한 로봇이나 우주여행, 타임머신과 외계인과 같은 과학기술과 결합된 미래의 환상은 어린 시절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소년'자들이 들어간 '소년' 잡지들이 전하는 근거 없는 낙관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싸구려 환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잡지들이 이삼십 년 안에 오리라 이야기하던 로봇을 종으로 부리고, 개인용 로켓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시절은 지금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던 빈곤상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춘기에 들어섰던 그

무렵부터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 목소리도 굵어지던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은 어린 시절 순수한 호기심도 많이 사그라지기도 했지만 지식에 대한 욕구는 더없이 강렬해졌습니다. 그 지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종로2가 종로서적이 있었으며, 몇 시간이고 책을 읽어도 눈치를 주지 않는 서점이었기에 문을 닫을 때까지 정신없이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는 을유문고, 서문문고, 삼중당문고 등의 문고본의 전성시대이기도 해서 가끔 빈약한 주머니 사정에도 책의 소유를 누리는 즐거움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고판들의 틈바구니에 어느 날 갑자기 전파과학사란 생소한 이름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현대과학신서'란 책들이 비집고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고들이 문학과 인문학 고전 위주의 편성이라면, 이 문고는 전혀 새로운 과학을 담고 있었으며, 그때까지의 같음을 해소시킬만한 여러 주제의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왔던 책들 가운데 가모브의 우주에 관한 책이 기억에 남고,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물리학과 생물학들에 관한 이론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과학책을 내는 출판사 이름이 '전파과학사'였냐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가능케 한 전파가 첨단기술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첨단은 광석라디오를 만드는 것임을 보면 그다지 이상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은 이 '전파과학사'의 설립자인 손영수 사장이 통신장교 출신임과 관련 있고, 애초에는 그런 전문 분야의 기술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였다는 사실은 나중 출판계에 들어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기획한 분이 대학 1학년 때 과학사를 배웠던 송상용 교수라는 것은 훨씬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1년에 스무권 가까이 나오는 이 과학책들은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우주, 원자, DNA, 기계, 화학 등의 새로운 개념들은 이들을 읽고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문학을 할까 과학을 할까 수없이 망설였으며, 종로서적에 서서 이미 몇 번을 읽었음에도 호주머니를 털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다른 어느 문고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서가 오른쪽 위에 가장 도드라진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 대접을 할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정말

저자약력

장인용 대표는 1995년부터 지호출판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6년 올해의 출판인상을 수상하였다.

이 첫 과학책들은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전파과학사에서 <전자과학>이란 교양과학 잡지도 나왔던 기억이 있고, '현대과학신서' 100권이 나온 뒤에 일본의 고단샤의 '블루백스' 시리즈도 번역해서 나왔지만, 그 100권의 인상이 가장 강하게 남았습니다. '블루백스' 시리즈가 인상이 깊지 않았던 것은 그 무렵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휴가 나와서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휴가를 나와서 종로서적에 들렀을 때에는 새로운 '범양사출판부'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나중에 듣기에 범양사라는 기업을 운영하던 이성범이란 분이 하이젠베르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회사에서는 은퇴를 하고, 그 회사 안에 출판부를 만들어 자신의 관심사들을 출판한 곳이라 합니다. 군대 시절에 보았던 책은 동양사상과 과학에 관한 책이어서 이채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출판사에서 80년대 초에 많은 주옥같은 과학책이 나왔으며, <과학사상>이라는 계간지도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범양사 책도 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즈음에는 '현대과학신서' 시절만큼의 열의는 없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대를 하고 앞날을 걱정해야 할 인문학도로는 차츰 과학책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사학도가 되어 유학을 하게 된 이후에는 과학책을 읽을 수 있는 호시절은 이미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과학책을 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월은 지나 전파과학사에서는 더 이상 신간이 나오지 않았으며, 범양사출판부도 시들해져 있었지만, 까치글방을 비롯한 새로운 출판사의 새로운 과학책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책들의 면모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내용도 깊어지고 분야도 많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스스로 출판 일을 하게 되었고, 출판사를 열어 책을 내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 있던 과학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내다보니 과학책을 내는 출판사들도 양문, 바다출판사, 사이언스북스, 지성사,

궁리, 동아시아, 뿌리와 이파리처럼 많아져서 같은 도반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아 외롭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출판사들이 과학책을 신선한 시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학책을 내는 젊은 출판사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 과학책 읽은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저 배려 차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제가 전파과학사의 책을 읽은 것처럼 과학책을 만드는 사람이 과학책을 읽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되는 분들도 대체로 청소년기에 과학책을 읽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책 읽은 사람이 꼭 과학자가 되거나 과학책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과학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책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비용을 배정하는 정부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과학에 자신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흔쾌하게 생각하거나, 과학과 관련된 뉴스를 반길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최소한 자신의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얻고, 조금이나마 이성적이 되는 길로도 충분할 겁니다. 어릴 적 세상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고 새 세대의 호기심에 박수를 보내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과학책을 읽은 사람이 결국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성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책이 더 많아져야 하고, 더 많이 읽히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70년대의 몇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중력파를 검출한 것처럼, 그때의 최초 움직임은 아직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더 크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과학책에 주는 상의 이름을 이런 분들의 생각을 기리기 위해서 '손영수 상', '이성범 상', '송상용 상'이라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 파동이 더욱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